

“얼짱 정치인요? 이제, 생짱 정치인이 될 겁니다.”

신자 국회의원 나경 원(아셀라)

글/사진 · 황남이(자유기고가)

나경 원 의원, 성녀 아셀라가 세례명인 그녀의 얼굴에는 한 점의 그늘도 찾아볼 수가 없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초여름, 국회 담장에는 싱그럽고 향기로운 장미 넝쿨이 산들바람에 마음껏 아름다움을 뽐어내고 있다. 그 장미처럼 나경민 의원의 모습에서는 밝고 건강한 미소가 넘친다.

“취미요?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일입니다.”

두 아이의 살뜰한 엄마의 취미는 소박하게도 사랑하는 자녀와 놀아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인터넷 다음 검색에서 나 의원 이름을 치고 엔터키를 누르자 당당하고 아름다운 포즈로 찍은 사진과 함께 잠수용 호흡기를 쓴 채 수영을 하는 모습이 이채롭게 다가온다.

초반이긴 하지만 40대라고 하기엔 너무나 젊어 보이고, 영화배우 못지않은 용모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그림자처럼 수행했던 나 의원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얼짱 정치인’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 이른바 ‘짱’ 신드롬에 기여하는 정치인으로 유명해진 나 의원, 그녀는 이런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예쁘다고 봐주시니 기쁘지요. 덕분에 많은 분들께 알려졌으니 복이라면 또한 복이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저는 얼짱 보다는 보다 생동감 넘치고, 민생을 우선하는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생(生)짱’ 정치인이 되려고 합니다”라는 포부로 답했다.

판사의 길을 걸던 그녀에게 정치권에서 어느 날 러브 콜이 왔다. 그것도 법조계 대선배이자 우리나라 제 1당이었던 한나라당 대선 주자인 이회창 후보로부터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은 것



이다.

나 의원은 몇 날 며칠을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다. 그리고는 2002년 9월 제 16대 대통령 선거 때, '잘 나가는' 서울행정법원 판사의 길을 접고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공식 직함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정책특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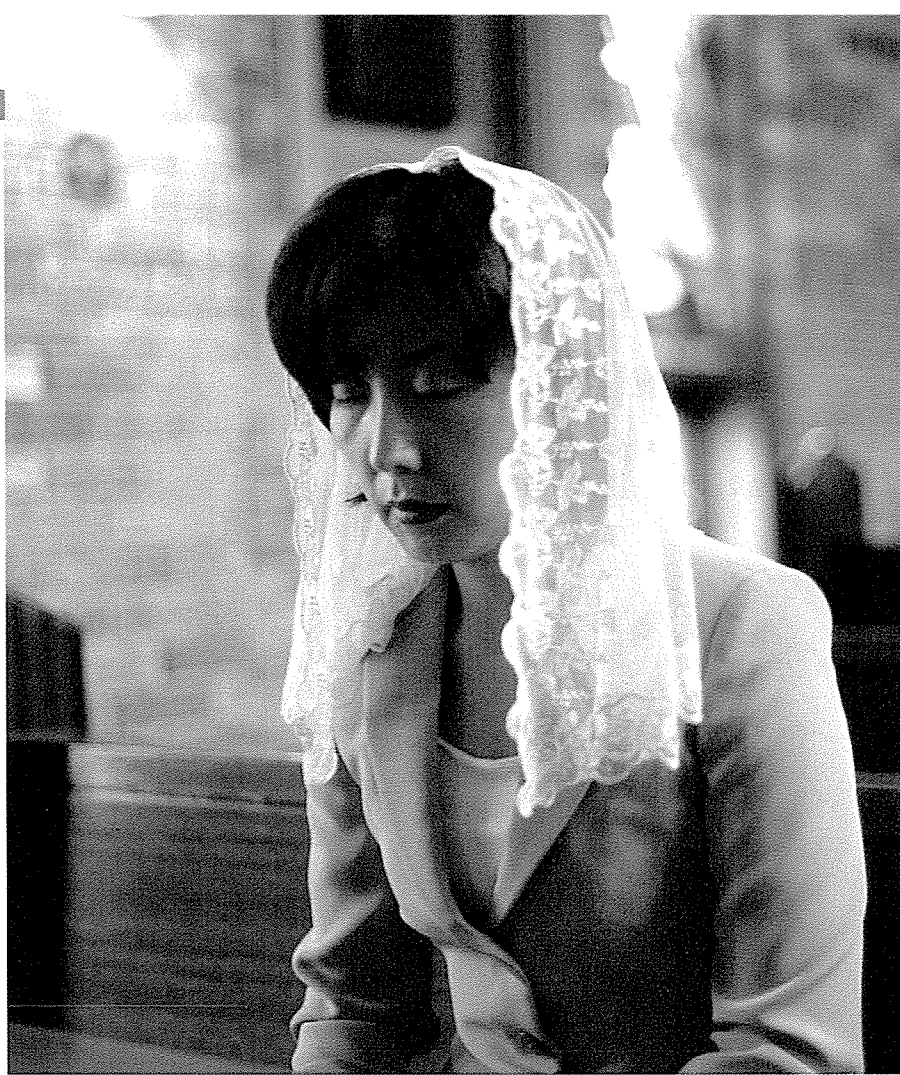
대학 동기이자 판사로서 같은 길을 걷고 있던 남편 김재호 씨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점'이 정치를 하게 된 중요한 이유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러나 중요한 계기가 하나 더 있다. 초등학교 6학년엔 다니는 그녀의 큰딸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다. 딸이 학교에 들어가야 할 즈음, 정상적인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었던 그녀는 한 사립초등학교에 원서를 냈다. 그런데 장애아는 받지 않는다는 학교 측의 반응과 심지어 '꿈 깨랴'는 교장의 태도는 모욕적이기까지 했다.

"너무 분해서 소송을 내고 싶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러지는 않았습시다. 그렇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교육부에 호소했는데 한참 뒤 구두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좀 나아졌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장애를 가진 자식을 키워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올바른 정책이 왜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지요."

그렇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애써 숨기려 하지도 않고, 또한 그것을 특별하게 보려 하는 시각도 거부하는 나경원 의원에게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교육과 복지, 권익은 생활정치를 표방하고 실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17대 국회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낙선되는



등 정치권의 물갈이가 사상 최대의 규모로 이뤄졌다. 또한 나 의원처럼 비례대표를 포함해 여성의 진출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았다. 단지 수적인 증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면면을 보면 17대 국회가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찬사와 희망이 될 것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나경원 의원이 주목받고 기대가 남다른 것은 바로 판사, 변호사로서의 풍부한 경험, 그리고 국민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참여정신과 자신의 자녀 문제가 곧 이 나라 자녀들의 문제라는 현실인식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나 의원 말대로 '얼짱 정치인'으로 출발했지만 생동감 넘치고, 어렵고 소외된 서민들을 위한 생활 정치의 모범을 구현하는 '생짱 정치인'이 되기를 바란다. 반드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 하고, 또한 지켜볼 일이다. 🐶